

민주당 최고위원들 “당 위기 대안, 이재명 선출로 증명돼”

박찬대 “민주당 위기 극복 대안, 이재명이 유일” 고민정, 친명 지도부 평가에 “더 이상 의미 없다” 서영교 “내가 먼저 ‘친문’ 언급...함께 일하는 것” 장경태, 영수회담 제안 관련 “尹정부 협력해야”

더불어민주당 8·28 제5차 정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신입 최고위원들은 이번 전당대회 결과를 두고 ‘민심과 당심이 일치한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당 대표와 함께 이끌어갈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는 ‘민생문제’를 손꼽았다.

이들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문제 및 당헌 80조 개정 등을 두고는 “쉽사리 기소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선을 긋기도 했다.

장경태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많은 당원과 지지자께서 민주당의 여러 개혁 약속을 충실하고 강력하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열망이 있었던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당심과 민심이 다르지 않다는 건 여러 여론 조사와 (선거) 결과를 통해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민주당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이재명밖에 없다는 것이 사실은 많은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증명된

순간”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낮은 전당대회 투표율 지적을 두고도 “실질적으로 투표율이 그렇게 낮았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며 “이번 전당대회 기준으로 권리당원이 120만명이 넘어서, 실질적으로 50만명이 늘어나 있는 상태”라고 했다.

선출된 최고위원들은 새 지도부가 친명(친 이재명) 일색으로 평가되는 것도 반박했다. 앞서 유일한 비명계로 분류됐던 고민정 의원도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녁’에서 “(친명과 비명의 분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저희가 안에서 선명성 경쟁할 시기는 지났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 얼마만큼 유능해지느냐의 숙제가 남았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언론에서는 편의상 친명과 비명으로 나누는데, 8명의 후보가 여성·청년·지역·조선·재선·3선 등의 다양한 구성이었다”며 “개혁적 성향이 강한 최고위원들이 더 많은 득표를 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제가 (이 대표에 대한) 팬심은 있지만 그렇게 계파를 나누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 역시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완전한 ‘친명계’라기보다 저희가 주장하는 내용이 이 대표와 생각이 같은 것”이라며 “이 대표와 함께 일을 해나가야 한다고 해서 친명계라 한다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이 대표가 먼저 ‘친문’이라고 언급했다”며 “그래서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님을 보러 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 지도부의 과제를 두고는 다 같이 ‘민생’을 시급한 현안으로 강조했다. 장 의원은 “첫째가 민생이고 둘째가 민생이고 셋째가 민생”이라며 “여러 가지 부차 감세, 공공요금 인상과 고금리 고물가 등 여러 현안이 있다. 지도부의 많은 고민과 고심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했다.

전날 이 대표가 제안했던 정부와의 ‘영수회담’도 언급했다. 장 의원은 “(이 대표가) 여야 구분하지 않고 힘을 모아 민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구상을 여러 차례 밝혀냈다”며 “윤 대통령께서 정말 민생과 관련한 국회와의 협력을 원하신다면 빠르게 (회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이 위기의 민생과 관련하여 뾰족한 대안을 하나도 내놓지 못하지 않았나”라며 “국민을 생각한다면



(영수회담을) 받으셔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문제를 두고는 “(법인카드 의혹 등은) 이 대표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사법리스크라고 표현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그런데도 사법리스크라고 한다면 김건희, 원희룡 사법리스크라고도 표현해야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되더라도 이 대표와 별개의 문제로 보느냐는 지적을 두고는 “김

철 기소는 결국 검찰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겠나”라며 “기억도 못 할 금액을 두고 130여군데 압수수색을 하는 수사방식을 모두 주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여당에서) 사법 리스크가 생기길 바라는 마음일 것 같은데, 과연 기소가 가능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든다)”며 “법인카드 의혹을 가지고 기소까지 간다면 당장 인사라인에 있는 한동훈 장관 등까지도 다 연쇄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최이슬기자

대통령실 “이재명-정무수석, 오늘 만나...李 지방일정 조정”

李대표, 文 전 대통령 예방 위해 오후에 평산마을行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29일 이진복 정무수석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를 만날 계획이었으나 이 대표의 지방일정으로 날짜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이날 대통령실 기자단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은 전례에 따라 전당대회 이튿날인 29일 정무수석이 이 대표를 예방하고, 대통령의 축하 난을 전달할 계획이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이 대표의 지방 일정이 진행되는 관계로 일정은 내일(30일)로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그러면서 “30일 오전으로 조율을 마쳤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예방을 위해 사지가 있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로 이동할 예정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 약속회견(도어스테핑)에서 이 대표와의 만남을 포함한 협치를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는 질문에 “야당을 포함해 국회와 함께 일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여야는 경쟁도 하지만 국익과 민생을 위해 하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도 이 대표와의 만남에 대해서는 즉답을 하지 않았다.

정승호기자

안철수, 새 비대위 구성에 당혹감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 등 당내 현안 질문에 말 아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당이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데 대해 “나중에 어느정도 정리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며 말을 아꼈다.

차기 당권주자인 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안 관련 질문에 “제가 정리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의원총회 결의에도 불구하고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문이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제가 정리해 말씀하겠다”고 했다.

입장 발표 시기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전에 알려드리겠습니다”고 했다.

김기현 의원 등 차기 당대표 도전을 준비 중

인 인사들은 지난 27일 당 의원총회에서 당헌·당규를 개정해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한 데 대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연내 조기 전당대회를 주장해온 김기현 의원은 지난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무거운 마음”이라며 자리를 떴고, 안철수 의원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얘기들을 하고 경청하고 그랬다. (제 의견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 23일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서 차기 전당대회 개최 시기에 대해 “12월 중순이라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밝힌 바 있다.

김재환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